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組立式 장식대용 벽돌 發明人

大明産業 金成浩 사장



〈金成浩 사장〉

組立式 장식대용 벽돌 하나로 實用新案 2건과 意匠 20건 등을 出願, 發明界와 인테리어 業界에 화제가 되고있는 大明産業 金成浩사장.

研究室에 들어서면 研究室長, 工場에 들어서면 工場長과 工員, 販賣戰線에서는 營業社員이 되는등 八方美人 이기도한 金사장은 오늘도 新製品 개발에 밤낮이 따로 없다.

이미 「이동 파라솔」과 「열분사기」등을 發明하여 企業化

를 시도해 보았으나 모두 실패, 이번만은 기필코 大成하겠다며 비장한 각오로 뛰고 있다.

『室内 장식을 하던중 기존의 벽돌은 시멘트가 필요하고, 숙련된 技能工이라야 제대로 시공할 수 있으며, 또 시멘트가 굳는 관계로 이사하거나 용도 변경시 파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組立式 벽돌을 考案하기로 했지요.』

이 제품은 누구나 보울트 하나로 손쉽게 組立 및 解體가 가능하다는 金사장의 설명. 이 發明品은 이미 全國의 가정 및 영업장의 응접실 탁자·벽난로·식탁·TV 및 책장·수족관·칸막이등으로 그 眞價를 발휘하고 있다.

金사장은 製品 生産前 철저한 市場調査로 販路 또한 걱정이 없다. 全國에서 걸려오는 주문 전화로 사무실은 活氣가

넘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6-2 범일빌딩 2층에 30명 규모로 마련한 創業사무실이 어느덧 비좁아 이사를 서두르는 것만 보아도 組立式 벽돌의 人氣가 얼마나 높은가는 짐작이 가고 남는다.

合成樹脂로 만든 벽돌에 石粉 혼합물을 코팅한 이 發明品은 實用新案 2건과 20건의 意匠으로 무장,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게되어 있다. 온 집안이 벽돌 研究室로 사용되어 「벽돌 아빠」라는 별명까지 붙은 金사장.

지난해 '88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 出品·展示에 이어 지난 5월 2일 KOEX에 개관된 발명장려관에도 展示된 組立式 벽돌의 發明人 金사장은 TV·신문·잡지의 인터뷰 요청까지 밀려들어 눈코뜰새가 없다. 연락처는 전화 511-1976. <※>